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상담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www.clean.go.kr



하나의 생각이 모여,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권익

ACRC NEWSLETTER 2020. Vol.64

SPRING

당신의 생각이

국민의 목소리가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국민의 목소리로

청렴한 세상을 위한
각기 다른 생각이 모여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소중한 생각이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곁에서
끝없이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청렴한
내일을 그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청백이와 권익이를 소개합니다

“부패와 불공정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따뜻한 호민관이 되어
국민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는 당차고 기개 있는 신세대 박문수.

청백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직한 국민권익의 지킴이 신문고.

권익이

※ 마스코트(캐릭터) 사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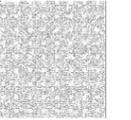
- +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디자인 자료를 상품화하여 사전 검토 없이 영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청백이”와 “권익이” 사용 필요시에는 담당부서(044-200-7075)와 사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 + 협의 후 “청백이”와 “권익이”를 이용하실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국민의 목소리로

청렴한 세상을 위한
각기 다른 생각이 모여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소중한 생각이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곁에서
끝없이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청렴한
내일을 그리겠습니다.



● CONTENTS

04 권익 포커스 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08 권익 포커스 ②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12 권익 빅데이터

2019년 민원동향

15 권익 인포

차세대 국민신문고

23 권익뉴스

분기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26 권익 샐롱

비안도 및 농업용 드론 사례

28 권익 지금

홍보담당관실

32 권익 바이블

한눈에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34 청백리포터

열차 지연 배상제도

38 청렴콘텐츠

2019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랩부문

42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세종특별자치시)

44 나도 편집장

국민권익위원회VS국가인권위원회

46 권익 트렌드&이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 원인 및 예방 수칙

48 권익 의식주

봄 제철 음식 재료와 요리법

50 #권익

독자의 소리 / 권익위 열독왕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점이자 도착점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20년에도 국민의 울타리로서 부패방지, 고충민원, 행정심판, 제도개선
 이라는 핵심 역할을 충실히 이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다.

1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성과 도출

-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와 각 부처, 사회 각계 협업
- +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통해 기존 생활적폐 9개 과제 외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불공정·비리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관리
- +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참여와 정보공개 활성화(국민생각함, 청렴포털 등)
- + 부패수준 진단·평가('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및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권익이(Gwonigi)

더 청렴하게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백이(Cheongbaegi)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 반부패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채용비리 등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

* 부패인식지수(CPI): ('17) 51위 → ('18) 45위 → ('19) 39위(역대 최고순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 부패신고자 보호·지원 수준 확대

* 신고자 보호인용률: ('17) 52.4% → ('18) 58.6% → ('19) 58.7%

+ 비실명 대리신고 신설('18),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번호사단 구성('19)

국민중심·현장중심의 권익구제 및 정책소통 추진

+ 적극적 고충처리, 행정심판으로 16,416건의 국민권의 침해 해소('17~'19)

+ 국민신문고 운영, 민원분석 등을 통해 268건의 제도개선 추진('17~'19)

더 국민 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1.8. 국회제출) 주요내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②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③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④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 가족채용 금지
(공채 또는 다수인 대상 경채를 거친 경우 허용) ⑦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익계약 체결 금지 ⑧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민간부문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확대

+ '청렴사회협약'을 공기업, 방위산업 등 5개 분야를 넘어 경제, 금융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로 확대

+ 고위공직자의 출선수법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정무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

+ 어린이 청렴 체험교실 등 초·중·고생을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청탁금지법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형·실천형 교육 강화

+ 오는 6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개최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성과 확산



2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에 역량 집중

- +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 중점 발굴하여 개선
- + 생활 속 불공정을 초래하는 제도 개선
- + 불공정한 사규 등 공공기관 내부규정 전수점검·개선(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비리 근절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정착

-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 + 채용비리 빈발분야 및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점검 실시
- + 공정채용 가이드북 보급 및 취약분야 업종별 컨설팅 등 실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망 확대

- +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신고자 보호대상 법률 284개 → 460여 개 확대)
- +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
- +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정률(보상대상가액의 4~30% → 30%)로 지급 방안 추진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시행

-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의 공정한 사용기준 정착
- + '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을 가동 및 실태점검, 제도개선
- + 제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 맞춤형 홍보 실시

「공공재정환수법」

대상 전체 공공기관(16,492개) 소관 법률(913개)·자치법규(6만 5천여 개)에 근거한 보조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약 229조 원 추산)

- 주요내용**
- ①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부정청구에 대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
 - ②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③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3 적극행정 선도로 국민 권익구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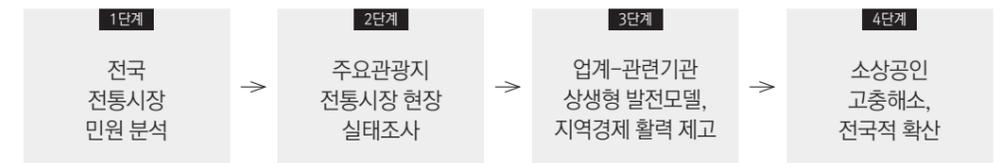
위법·부당,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고충 해결

- + 각종 혁신산업과 관련된 인·허가, 자금지원 등에 관한 고충민원 신속 해결
- + 행정심판 접수·처리 과정의 국민 편의 제고
- + 집단민원 중점 해결, 집단민원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 지속 추진

적극적 현장소통·상담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 추진

- + 전국 243개 지자체를 1회 이상 찾아가는 '방방곡곡 현장속으로 프로젝트' 추진
- + '관광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고충해소 프로젝트' 중점 추진

관광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고충해소 프로젝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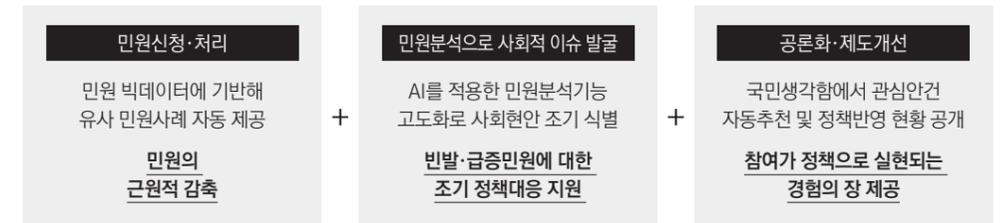


- + 정부합동민원센터와 국민콜110을 통해 권익구제 사각지대 해소
- + 협업에 기반한 민원 대응(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대 설치·운영, 국민생각함과 지역 거점대학 간의 연계를 통한 '우리동네 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

4 국민의 목소리, 민원을 넘어 정책으로

정책생성-집행-사후관리 등 '정책의 생애주기' 전반에 국민참여 확대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통한 디지털 혁신으로 민원편의 높이고 ↑, 참여도 확대하고 ↑〉



과학적 민원분석·정책환류로 신뢰받는 국정운영 지원

- + 국민 생활밀접 분야 민원분석·제공, 국민신문고 '이슈관리' 기능 신설 및 민원예보 발령·대응 현황 공유 확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개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crc.go.kr/plan20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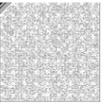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국제반부패회의가 2003년 제11차 회의 이후 오는 6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열린다.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세계적 반부패 연대와 행동의 자리가 될 국제반부패회의를 미리 들여다보자.

더 청렴하게

IACC

더 넓은 세계로



교류와 협력,



정보공유의 장이 열린다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이하 IACC)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간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투명성기구(TI) 및 IACC 위원회가 주최하며, 한국투명성기구가 참여한다.

IACC는 반부패 경험과 정보 교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83년 처음 개최된 이래 격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는 140개국의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 등 반부패 전문가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 연대의 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IACC 차기 회의 유치에 위해 노력해 왔다. IACC 위원회는 제19차 회의 개최국을 대한민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최국 정부 대표로서 회의 전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제투명성기구와 한국투명성기구, IACC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제19차 IACC의 주제는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로 미래 청렴 전략, 부패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거버넌스를 위한 투명성 기준 등을 논의하며, 8개의 전체세션과 50여 개의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전체세션에 2천여 명의 모든 참석자가, 워크숍에 150~200여 명이 참여한다. 본회의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2030 세대가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반부패 영화

제’는 탐사보도나 내부고발자와 같은 반부패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하고, 감독이나 배우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페어플레이 뮤직 콘서트’를 통해 전 세계 공모를 거쳐 선발된 젊은 음악가들의 반부패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국민과 청년, 학생 등에게 개방될 ‘청렴 콘서트’는 마당극, 샌드아트 등 부패 문제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저명한 국내외 반부패 인사들과 사회정의, 공정, 부패 문제 등 관한 대화를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논의나 참가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영저널리스트’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IACC에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다.

● “이번 국제반부패회의는 한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2003년 서울 회의 개최 이후 보다 청렴하게 변화한 한국의 모습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청렴사회로 도약할 새로운 10년을 꿈꾸다 제19차 국제반부패 회의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2월 4일 위겟 라벨르(Huguette Labelle) IACC 의장이 국제반부패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위겟 라벨르 IACC 의장은 이번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한국은 반부패를 향한 국민적 열망과 이를 반영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바탕으로 청렴수준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이번 국제반부패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배경도 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반부패컨트를 타워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국제반부패회의는 한국이 그동안 이루어온 반부패 성과와 우수한 반부패 정책들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6월 서울회의가 세계 각국의 반부패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고 청렴사회로 도약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향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추세에 따라 개최 일정과 장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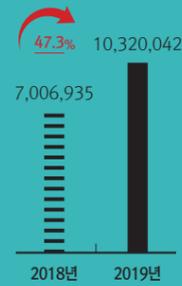


민원 추이

+ 2019년 민원 발생량*은 총 10,320,042건으로, 전년 대비 47.3% 증가

+ 월별 발생량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 6월 증가율이 가장 높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 청구(시도포털, 서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가 35.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 16.2%, 20대 이하 7.0% 등의 순

+ 성별로는 남성 56.1%, 여성 43.9%로, 남성 신청자가 많음



분야별 현황

+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40.8%)가 가장 많고, 주택(13.3%), 교통(11.7%), 안전행정(6.2%), 환경(5.6%), 도로(5.4%) 분야 등의 순

민원발생 상위 5개 분야

(단위 : 건)

분야	비율	건수
경찰	40.8%	3,655,019
주택	13.3%	1,189,584
교통	11.7%	1,049,639
안전행정	6.2%	556,214
환경	5.6%	501,70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민원 빅데이터는 민원 현황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각종 연구와 상품,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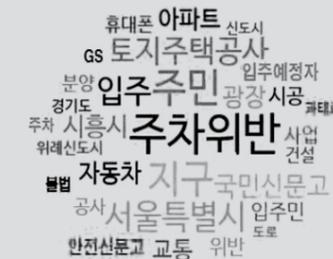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동향 분석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계획한다. '2019년 민원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간다.



민원 키워드



+ 상위 키워드는 주차위반, 주민, 지구, 서울특별시, 입주, 토지주택공사, 국민신문고, 광장, 자동차, 시흥시, 아파트 등의 순

+ 주차위반, 자동차 등 생활불편신고와 입주, 아파트 등 주택관련 키워드가 상당수를 차지

Top 30 키워드

(단위 : 건)

순위	키워드	민원량	순위	키워드	민원량	순위	키워드	민원량
1	주차위반	1,914,768	11	아파트	919,376	21	불법	660,487
2	주민	1,696,751	12	교통	898,909	22	공사	641,838
3	지구	1,599,676	13	시공	799,038	23	건설	607,525
4	서울특별시	1,355,537	14	입주민	788,871	24	과태료	605,303
5	입주	1,311,776	15	위반	788,638	25	경기도	539,124
6	토지주택공사	1,264,400	16	입주예정자	764,446	26	주차	536,099
7	국민신문고	1,083,433	17	사업	761,513	27	위례신도시	524,321
8	광장	1,014,804	18	안전신문고	724,454	28	신도시	512,006
9	자동차	971,922	19	휴대폰	720,587	29	GS	495,585
10	시흥시	968,356	20	분양	698,951	30	도로	486,721

2019년 국민불편 개선 우수사례

‘국민불편 개선 우수사례’는 지난 1년 간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를 관계기관이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한 우수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이는 관계기관에서 유사한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p>1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확대</p>	<p>2 다자녀 세대증 지원 확대</p>
<p>[불편사항] 군 입대를 앞둔 자녀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에 병역 판정검사를 위하여 병무청 지정병원을 갔으나 처치가 만족스럽지 않아 기존 병원으로 다시 옮김. 상담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어 따라가게 되었으나 문제는 병역처분 변경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가 기존 병원 4개월, 바뀐 병원 2개월로 되어 있어, 동일한 병원에서 6개월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안 된다는 것임.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겠지만,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는 의사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치료경력 등 예외사항을 고려해 주기 바람.</p> <p>「국민의 소리」 제497호('18.12.26.)</p> <p>[개선내용] 「병역처분변경 업무규정(제6조1항)」을 개정하여 비지정병원의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를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의료시설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동일 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p> <p>병무청('19.1.)</p>	<p>[불편사항] 4명의 자녀와 함께 순천시로 전입하였는데 순천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복지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자녀 세대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음. 이처럼 출생지역에 한하여 다자녀 세대증을 발급해 준다면 타지역 전입자는 출생지역과 전입지역 어느 곳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니 실거주지 중심으로 다자녀 세대증을 발급해 주고 유효기간도 연장해 주기 바람.</p> <p>「국민의 소리」 제491호('18.11.14.)</p> <p>[개선내용]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세대증의 지원대상을 출생지와 상관없이 13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 모든 세대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문화·복지 지원 혜택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함.</p> <p>전라남도 순천시('18.12.)</p>
<p>3 「생활불편신고」 앱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 강화</p>	<p>4 부산시민공원 전통휠체어 충전기 설치</p>
<p>[불편사항]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접수’, ‘처리중’과 ‘답변 완료’ 등의 내용만 알 수 있고, 민원 처리 부서와 담당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불편함. 국민신문고 등 다른 민원창구처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민원도 접수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p> <p>「국민의 소리」 제525호('19.7.24.)</p> <p>[개선내용]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청한 민원에 대한 담당자 이력 및 처리현황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함. 또한, 민원처리 정확도 향상을 위해 민원 신청 시 제보할 수 있는 사진 개수 조정과 해상도 향상, 신고민원에 대한 통계 조회 제공 등의 기능도 추가적으로 개선함.</p> <p>행정안전부('19.12.)</p>	<p>[불편사항] 전통휠체어를 타고 부산시민공원을 방문한 1급 지체장애인임. 너무나 잘 조성되어 있는 시민공원을 보고 부산 시민으로서 뿌듯함을 느꼈고, 여타 장애인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어 정말 편리하고 안락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통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없어 넓은 시민공원을 다니다가 자칫 방전이라도 되면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음. 넓고 깨끗한 시민공원을 장애인들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전통휠체어 급속충전기를 비치해 주기 바람.</p> <p>「국민의 소리」 제510호('19.4.10.)</p> <p>[개선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시민공원 및 노유자 시설 등에 장애인 전통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함. ※ 부산진구 7개소에 9개의 전통휠체어 충전소를 설치</p> <p>부산광역시 부산진구('19.7.)</p>

국민의 생각, () 국민의 () 소리가 되다 국민의 생각,

한눈에 읽는 국민신문고 A to Z

「국민의 생각, 국민의 소리가 되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생각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개통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되는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권익 인포 ① 차세대 국민신문고

- 16p ① 신속·정확·편리 차세대 국민신문고
- 18p ② 주요 개선사항 #1
- 20p ③ 주요 개선사항 #2
- 22p ④ 한눈에 보는 대국민과 공직자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국민의 생각, () 국민의 () 소리가 되다 국민의 생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업무영역과 이용기관의 확대, 모바일 이용자 증가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부분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이번 차세대 국민신문고는 모바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차세대 국민신문고 개통 취지 및 목적

신속·정확·편리 차세대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무엇)인가요?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 온 국민신문고는 1,008개 행정·공공기관에 연결돼 국민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왜 개선이 (필요)한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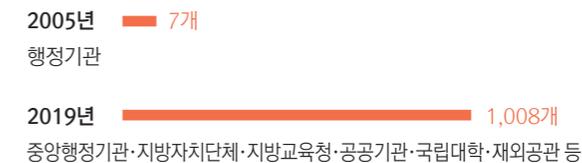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영역 및 이용기관, 이에 따른 민원 건수와 이용자 수로 인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 업무영역



+ 이용기관



+ 민원 건수



+ 모바일 이용자 비율



차세대 국민신문고, (주요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차세대 국민신문고는 최신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국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①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②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③ 민원분석시스템 성능을 개선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각급 행정기관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④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민원분석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슈관리’와 ‘정책 선순환’을 구현하였습니다.

차세대 국민신문고는 기존 국민신문고 기능이 대폭 개선되어 민원을 신청할 때 유사 민원사례가 자동으로 제공돼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이용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국민생각이 자동 표출돼 직접 정책참여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정보를 과학적으로 다양하고 정확하게 분석·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소리에 근거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편리한 민원신청, 국민생각함 통합, 민원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국민신문고 주요 개선 사항



어떤 (최신 정보기술) 을 활용하였나요?

기존 국민신문고는 개인용 컴퓨터(PC)에 최적화돼 모바일에서는 일부 화면 깨짐 현상이나 좌우 이동 스크롤바(Scroll Bar)가 생기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국민신문고는 반응형 웹으로 만들어져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의 화면 크기에 자동으로 최적화된 화면구성을 보여줍니다.



(이용자 편의성)은 어떻게 개선되었죠?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원 신청단계에서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과 유사한 민원 사례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단순 질의민원 등을 반복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판단해 소관 부서에 배정함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면 접수가 지연됐지만, 현재 시스템이 자동으로 민원을 적합한 부서에 배정해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신속한 접수·처리가 이뤄집니다.

국민신문고(기존)	차세대 국민신문고(개선)
다른 민원사례가 있는지 잘 몰라서 유사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민원 신청시 정확도 높은 유사 민원사례 자동 제공으로 궁금증 해소로 신청 중단
모든 민원의 소관부서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배정해 민원 급증 시 접수 지연	적합한 소관부서 자동 추천·배정 기능으로 민원 급증 시에도 신속한 접수 가능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소통 확대)는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현안을 국민생각함 토론 안건으로 제시하고, 이용자의 관심 분야를 파악해 맞춤형 안건을 메인화면에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정책참여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또 자신이 참여한 안건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줘 “내가 직접 정책을 만든다”라는 주체 의식과 참여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으로 이원화돼 있었던 국민의 정책참여 창구를 국민생각함으로 단일화해 이용자의 혼선 또한 없었습니다.

국민신문고(기존)	차세대 국민신문고(개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국민생각함 안건을 찾기 어려움	이용내역을 분석해 사용자별로 관심 분야 안건을 메인화면에 표출
내가 등록하거나 토론에 참여한 안건의 진행 과정을 알기 어려움	내가 참여한 안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즉시 알림서비스 제공
국민생각함과 국민신문고 정책 참여 기능 중복으로 이용자 혼선	정책참여 기능을 국민생각함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스템은 국민신문고로 통합



차세대 국민신문고 주요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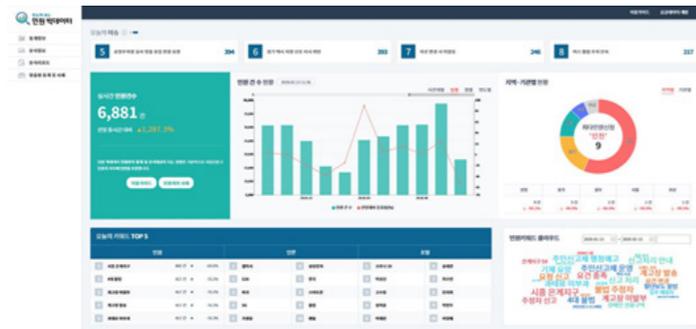
(민원분석시스템) 성능과 (민원 빅데이터) 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동안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시스템 성능 노후화로 데이터 추출 및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단순 키워드 분석의 한계로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분석 기능을 1종에서 7종으로, 민원 빅데이터 개방 정보를 4종에서 10종으로 다양화 시켰습니다. 또 민원 데이터뿐만 아니라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검색어 등 수집된 외부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민원분석시스템(기존)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개선)
분석기능	1종(군집분석)	7종(군집+키워드트렌드·연관어·네트워크·공부정추이·다차원·TopN키워드)
개방정보	4종(민원통계정보·급증키워드 정보·TOP키워드정보·민원분석분야정보)	10종(기존4종+시계열·유사사례·키워드클라우드·오늘의 민원이슈·기관별 민원발생순위·지역별 민원발생순위)
분석대상	민원 데이터	민원 데이터 + 외부 데이터 (언론*, SNS, 포털 검색어 등)

* 언론 데이터 : '90년 이후 신문 방송 등 국내 주요 언론사 6천만건의 뉴스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or.kr)와 연계해 활용
 *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에서 볼 수 있으며, 누구든지 민원 현황과 분석 정보를 확인하고 개방데이터 이용 가능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bigdata.epeople.go.kr)



차세대 국민신문고는 “민원 신청과 처리를 더욱 편리하게 하고, 민원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이슈나 현안을 조기에 식별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한 것”

“앞으로도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이용자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

차세대 국민신문고에서 (이슈관리)와 (정책 선순환)은 어떻게 구현되나요?

차세대 국민신문고는 최신 분석기술을 도입해 지역별, 기관별, 분야별 급증민원 등 이슈민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각급 기관은 이를 활용해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식별된 현안사항은 국민생각함 의제로 등록돼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및 정책으로 실현됩니다.



차세대 국민신문고, <국민과 공직자> 주요 개선사항

국민의 민원 신청을 더 편하게, 좋은 정보를 더 많이!

■ 민원 신청(국민신문고)

Before	After
유사 질의민원 반복 제기	내가 알고 싶은 민원사례 자동 제공
모바일 신청 편의성 부족	모든 기기에서 간편하게 민원 신청

■ 정책 참여(국민생각함)

Before	After
모든 안건을 나열식으로 제공	개인 이용성향 분석 및 관심 안건 자동 추천
창구가 중복되어 이용자 혼선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으로 참여창구 일원화

■ 데이터 개방(민원 빅데이터)

Before	After
공공데이터 개방 부족	활용도 높은 데이터 개방 확대 ※ 4종 → 10종(시계열 분석 등)
민원 데이터만 한정해서 분석	언론, SNS, 포털 등 외부데이터 비교 분석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을 더 효과적으로, 더 똑똑하게!

■ 민원 처리(국민신문고)

Before	After
연간 8백만 건의 민원 처리부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정	적합한 처리부서를 자동 추천·배정하여 업무 효율화
단기간 빈발하는 집단민원 발생 시 민원접수·처리 지연 발생	키워드 분석을 통한 빈발민원 일괄 접수 및 병합 처리

■ 참여 활성화(국민생각함)

Before	After
기관 맞춤형 전문가 관리 곤란(권익위가 전문가 총괄 관리)	기관에서 직접 전문가를 등록·관리하고 소관 안건에 초대
기관 안건에 비해 국민 안건의 정책 반영 저조	우수 국민 안건은 소관 기관에서 검토·반영하도록 권익위에서 지정

■ 데이터 활용(민원분석시스템)

Before	After
기능 노후화로 낮은 정확성 및 과도한 시간 소요	기계학습을 통한 정확도 제고 및 분석시간 단축
단편적 기능으로 데이터 상황에 맞는 맞춤형 분석에 한계	트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 기능 다양화(1종 → 7종)



ACRC NEWS

2020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와 정책 이야기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 1년 만에 역대 최고점수

세계 3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이번 점수는 전년 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한 결과이다.

최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지속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로 반부패 과제들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가청렴도를 견인하고 국제사회 반부패 주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총괄과 ☎ 044-200-7619



2020 국민권익위원회 이슈

2020 국민권익위원회 이슈

2 DATE. 0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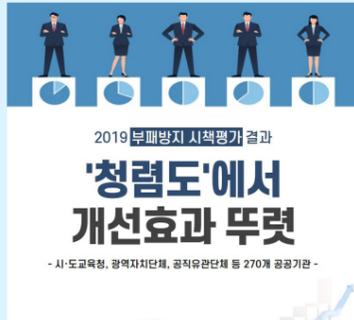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법률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등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고위공직자가족의 채용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등 8가지 행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i 자세히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행동강령과 ☎ 044-200-7672

3 DATE. 01.28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청렴도에서도 개선 효과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노력을 기울인 기관일수록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체 기관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68개 기관의 2019년도 청렴도 상승폭은 전체 기관의 청렴도 상승폭보다 0.05점 높은 0.12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i 자세히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조사평가과 ☎ 044-200-7634

4 DATE. 02.21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손을 잡고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교육분야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분야 비리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상·포상에 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i 자세히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4

5 DATE. 01.09



수북지역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 길 열렸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3,429필지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22,968필지 93,973,248㎡가 일제히 정비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해 국유화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7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6·25전쟁 수북지역 무주지 토지정리 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i 자세히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기업고충민원팀 ☎ 044-200-7832

6 DATE. 02.19



국민 생활 속 목소리
정책 공약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별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issue.nec.go.kr)' 누리집을 2월 19일 개통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약 1,500만 건을 분석해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역별로 주요 민원 키워드를 확인하여 우리 지역의 공약이슈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i 자세히알아보기
홈페이지 issue.nec.go.kr
민원정보분석과 ☎ 044-200-7283

7 DATE. 01.29



보호수는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산권 침해로 이유로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를 거부한 서울특별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번 재결례에 의하면 보호수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재건축 과정에서 보호수가 위치한 지하공간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수가 지정해제 및 이식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i 자세히알아보기
홈페이지 www.acrc.go.kr
국토해양심판과 ☎ 044-200-7863



사연 1

17년만에 낙도(비안도) 도선운항길마련

“살다보니 이런 날도...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무슨 일인가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비안도에는 182세대 35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국내 도서지역 중 유일하게 정규 해상교통 수단 없이 지금까지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육지를 왕래하고 있다. 비안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생활불편과 선박사고 위험을 호소하며 각급 기관에 가력선착장을 이용하는 정규 도선운항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비안도와 가력선착장을 오가는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가력선착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부안군 어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가력선착장이 협소해 두 지역 주민들 간의 협의가 쉽지 않았다.

● 어떻게 해결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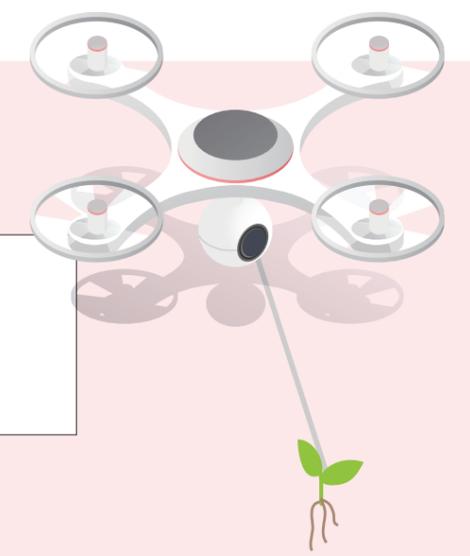
먼저 관계 법령을 파악해 협업대상 기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군산시와 부안군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상호 입장과 의견을 듣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서로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가력선착장 도선운항에 전격적으로 합의해 이르게 되었다. 이후 관계기관과의 실무 작업에 착수하여 도선운항 면허, 선박마련, 부대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을 원만하게 추진하였고, 마침내 2018년 12월 18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십 수 년을 끌어오던 민원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9년 12월 17년만에 비안도로 통행하는 여객선이 취항하였다.

● 시사점

여러 가지 갈등 유형(민·민, 민·관, 관·관)이 혼재된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의 본질파악이 우선이다.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정책추진이 안될 경우 반대하는 주민 설득이 핵심이고 설득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원현장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야 한다. 민원인과의 공감과 신뢰가 형성되면 모든 갈등은 봄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 민·민 갈등이라는 사유로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고충 민원  **권익 총만**

안녕하세요. <권익 살롱> DJ 권입니다. 저희 코너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활약상을 조명합니다. <권익 살롱> 대망의 첫 걸음. ‘뱃길이 열린 비안도’와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농업용 드론 비행 허용’에 관한 고충민원 사례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사연

- 17년만에 낙도(비안도) 도선운항길 마련
- 부안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 열어 비안도-가력선착장 선박운항 방안 중재
- 군사상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농업용 드론 허용
- 농업용 방제, 농민 편익·효용, 드론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실시



사연 2

군사상 비행금지구역의 농업용 드론 허용

“저는 2급 장애인이라 몸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드론이 있다면 농사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주십시오.”

● 무슨 일인가요?

민원인은 민통선 이북지역인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며 영농을 하다 그만 지뢰사고로 2급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삶에 의지를 다지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농사를 짓던 민원인은 얼마 전 농약 살포 등을 위해 2천 여만 원의 큰돈을 들여 드론을 구입했다. 몸이 불편한 그에게는 여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근 군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통선 내 지역에서는 긴급작전, 의무후송, 긴급재해재난 등을 제외한 농업용 드론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비싼 값을 치른 드론이 무용지물이 되게 생긴 민원인은 ‘카메라 제거, 시간지정, 군부대 담당자 동행’ 등 어떠한 조건을 부가해도 좋으니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어떻게 해결했나요?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봤다. 우선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을 알아보니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2016년 농업용 드론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유엔사 규정과 합동참모본부 비행지침서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봐도 농업용 드론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았다. 각 지자체 등에서도 예산을 들여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보급하여 방제 등에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군사제한구역이라고 해도 농업용 드론의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기꺼이 수용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 완료했다.

● 시사점

민통선 이북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기도 하나, 지뢰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농작물 방제는 지상보다 공중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므로,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공중방제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각 분야에 접목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이나 행정 처리가 이에 따르지 못할 경우 국민 불편·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군사상 비행금지구역이라 할지라도 농업지역에 최신농업장비(드론) 사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한 특별한 소식!



홍보담당관실 빠르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홍보(弘報)’의 사전적 정의는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를 뜻한다. 하지만 배포한 자료들이 평소 자주 접하지 않는 낯선 단어와 어려운 표현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도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터. 이 때문에 홍보담당관실은 다양한 매체의 특성과 구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기능 그리고 사업 등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홍보담당관실은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잘 추진할 수 있게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홍보기획 파트’, 위원회 주요 소식에 대한 언론보도 계획을 세우고 기자들의 취재를 지원하는 ‘공보 파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위원회 SNS와 여러 온라인 매체로 확산하는 ‘디지털소통팀’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정부 부처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알림이’인 홍보담당관실도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된 요즘 시대에 발맞추어 SNS 홍보를 전담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새롭게 개설한 것이다. 덕분에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PD와 작가, 편집디자이너 등 영상과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도 실무진으로 합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9년 9월에 개국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의 활성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행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도 이제 디지털 시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와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더 많은 국민이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식을 전달하는 홍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홍보담당관실은 주요 정책과 기능을 더 많은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전하는 ‘알림이’로 활약하고 있다.

(뒷줄-좌측부터) 정중훈 주무관, 조수연 사무관, 김훈중 주무관, 김지은 주무관, 이해우 주무관, 이기환 주무관, 김기현 주무관
(앞줄-좌측부터) 황정화 디지털소통팀장, 장성현 사무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생방송도 진행한다. 개국과 함께 가능성도 확인했다. 2019년 9월 26일에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 토크 콘서트'에 동시 접속한 인원이 무려 2,800여 명. 정부 부처에서 진행되는 생방송에 수천 명의 동시 접속이 발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한 달에 한번은 국민권익위원회 각 사업부서 실무진이 참여하는 홍보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홍보 현황을 나누며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다. 자발적으로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30여 명의 '디지털 서포터즈'는 홍보담당관실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디지털소통팀 황정화 팀장은 "지금은 어떤 콘텐츠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을 찾아가는 실험 단계"라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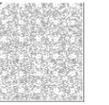
"정책적인 내용을 마냥 가볍게 다룰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딱딱하고 어려우면 아무도 그 콘텐츠를 보지 않니까요. 다양한 실험을 하다 보면 우리만의 킬러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큰 꿈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제2의 팽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책을 쉽고 흥미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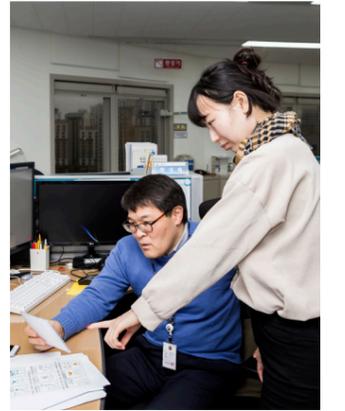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나,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관한 법률 규정이 어려운 데다 관련 사례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이를 쉽게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더구나 많은 국민의 관심을 얻으려면 '재미'도 있어야 한다. 조수연 사무관은 "공직자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콘텐츠를 바라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한다" 말한다.

"각 사업부서에서 받은 문서를 공부하고 핵심 메시지만 압축해 일러스트나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SNS 채널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시각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사업부서에서도 정책의 방향이 콘텐츠에 잘 담길 수 있게 의견을 냅니다. 가끔은 한 장의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 일곱여덟 번씩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수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덕분에 국민권익위원회 SNS 채널에 올라가는 콘텐츠도 다채로워지고 있다. 영상 콘텐츠로는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해당 정책이나 제도를 설명해주는 <조사하면 다 나와>, 현장조정회의 등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행정을 담은 <현장 행정 기획 영상>, 밥술의 요리가 익어가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를 낱알이 파헤치는 심층 토크쇼 <밥술 토



크)가 대표적. 또한 정책을 이미지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웹툰 등의 이미지 콘텐츠도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스코트를 개발했다. 암행어사의 후손인 '청백이'와 신문고를 상징하는 '권익이'다. 김기현 주무관은 "위원회의 기능이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마스코트를 통해 친근감을 표현하려고 한다"며 마스코트 개발 배경을 전했다. 홍보담당관실은 마스코트를 활용한 굿즈는 물론 영상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의 목표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과 제도를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더불어 TV와 라디오, 신문 등의 전통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Mini Interview



정종훈
주무관

2018년 5월에 발령받아 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내보낼 보도자료를 만들고, 언론에서 들어온 문의 사항을 각 부서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양한 정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여서 항상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SNS 채널



김현중
주무관

유튜브 채널 담당자로서 영상 기획과 편집 등의 제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과 기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유머와 예능을 가미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어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구독자들이 볼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SNS 채널

권익비전 ▶
권익비전

f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t
트위터

globe
홈페이지

2020년 1월 1일, 부정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바로 '공공재정환수법'인데요. 이 법률로 인해 229조 원의 국민의 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나랏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하는 국민을 위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을 소개합니다.

한눈에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 청구 발생 시,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명단 공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제재 규정이 미비해 '걸려도 보조금만 토해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었지만,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원활한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강력해진 제재규정 마련으로 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부정청구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부정이익]	부정청구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기관에서 마련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는 다르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법 제9조]

<p>허위청구 ▽ 부정이익 가액의</p> <p>X5</p>	<p>과다청구 ▽ 부정이익 가액의</p> <p>X3</p>	<p>목적 외 사용 ▽ 부정이익 가액의</p> <p>X2</p>
---	---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사례

종류	사례	적용 전	적용 후
유아교육보조금	유아교육기관장 A는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며 원생 수를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부풀려 청구 후 방과후 과정보 부정수급	부정이익만 환수 →	부정이익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국가장학금	대학생 A의 부모 B씨는 회사에 근무하며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장기요양급여비용	요양센터 대표 A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 후 비용 부당 청구		
지방보조금	지역 체육단체 회장 A는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용품 및 장비를 구입, 거래 업체들과 사전 공모로 단가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청구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신고자 보호</p>	<p>신고자 보상·포상</p>
---------------	------------------

신고상담
신고방법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FAX : 044-200-7972

공공재정환수법, 그것이 알고 싶다





열차가 지연 도착하면 운임의 일정금액을 배상해주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돼 더욱 많은 이용객들이 열차이용 불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와 방법을 쉽게 알도록 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및 (주)에스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민원사례 #1

얼마 전 탑승한 열차가 목적지에 1시간 15분 지연 도착하였으나, 하차 당시 구두로 안내를 못 들었을 수 있는데 추가 안내가 없었음. 평소 지연배상을 알고 있어서 앱에서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할인권과 동일할 것으로 인지하고 마일리지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할인권의 50%만 배상되어 당황하였음.
(’18. 7월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2

부산에서 서울행 열차 이용시 신호고장으로 1시간 20분 지연되어 지연배상 받으려고 앱에 접속해 지연할인권이 자동발급된 줄 모른채 메뉴에서 지연배상을 선택하니 마일리지로 배상되어 할인권의 50%만 배상받아 불편할 뿐 아니라 불합리함.
(’18. 8월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3

작년 이용한 열차가 지연되어 할인권으로 지연배상 받았으나, 별도의 안내가 없어 배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할인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사용하지 못함. 고객 입장에서 개선 필요.
(’18. 11월 민원)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철도회원에게 지연배상 시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횡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동일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웹툰 리포터

지각 열차, 아까운 내 시간. 열차지연 배상금으로 보상받자!

웹툰 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x 2020 청백리포터

웅산역 KTX

아하...

엄청 달려왔는데 20분 열차 지연이네... 지연배상 받으려고 또 가야해?

산들거까

열차지연 배상방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부 개선했다구요!

HAHA HA!!

??

열차 지연배상이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지연 배상일부터 1년 이내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20~40분 미만 -> 12.5%
- 40~60분 미만 -> 25%
- 60분 이상 -> 50%

※ 보상제외

- 이미 지연 사실을 알고 승차권을 예매한 경우
- 자연재해와 안전거리 등 회사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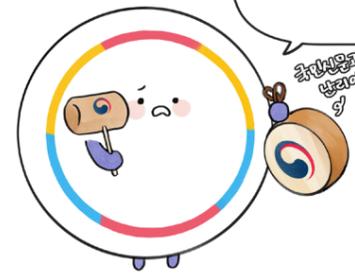


이왕이면!

이런 유용한 제도가 있는데,

이용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절반 이상이 보상받지 못했다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짜-악! 개선했습니다.



역 구내 전광판 상시 안내



역 구내 전광판, 안내문, 안내방송 등을 통해 배상 방법과 제도를 상시 알리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하였습니다.

배상방법 선택가능



위 세가지 중 고객이 선택하여, 지연배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할인권 지급 경우 사용횟수 제한 없이 금액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지연배상비율 고지



마일리지 지연배상을 받을 경우,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배상방법을 선택화면에 안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랩 부문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렛츠기릿

랩으로



세상을 + 바꿔! 청렴 스웱

2019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번째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했다.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청렴,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총 1,066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50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신설된 '청렴 랩(RAP)' 부문은 독특한 주제와 전달방식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각자의 개성 있는 비트에 '청렴'을 새긴 수상작 11편을 소개해 본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여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경험 등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공모하고 있다.

대상 | 1개 작품



대상으로 선정된 '매화'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 충절을 상징하는 매화처럼 깨끗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상 | 3개 작품



'투명한 세상'은 투명(clean)한 세상 속에서 청렴한 서로를 믿고 신뢰하자는 내용을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노래했다.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부터)'는 양심을 간직하고 청렴을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청렴한 게 좋은 거야'는 청렴의 6덕목과 청렴한 인물을 언급하며, 정직한 사회를 위해서 청렴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수상 | 1개 작품



최우수상 '선비'는 선비의 어투를 사용하여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청렴이 변치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수상작은 청렴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 (www.integritycontents.kr) 및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www.youtube.com/acrc0229)'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정식 음원으로 발매되어 음원 사이트에서도 '청렴 콘텐츠'를 검색하여 쉽게 찾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다가오는 5월부터 「2020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도 진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청렴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 (www.integritycontents.kr) 참고



장려상 | 6개 작품



1 'What A Great Idea'는 우리 모두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이다.



2 '다산이길'은 다산의 목민심서, 하피첩 등에 기재된 문구를 인용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함과 자신을 잃지 말고 지켜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3 '크린 랩(Clean Rap)'은 식사 접대, 선물 청탁, 경조사비 등 3가지 경우에 따른 행동요령을 제시하며 양심을 지킬 것을 노래했다.



4 'We have to be blue(Clean and Good)'은 우리 모두 푸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5 '청렴의 길'은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말고 항상 청렴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가사를 감각적인 랩 비트에 맞춰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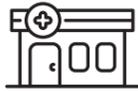
6 '청렴번호 355'는 청탁금지법 중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제한의 뜻을 담은 '3-5-5'를 기억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건전한 토론과 협업을 통해 더 좋은 정책으로 구현해나가는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www.idea.epeople.go.kr)이다. 이번 봄 호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녹여 낸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소개한다.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세종특별자치시)



미복용 의약품 처리 현황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조사'

55%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통

36%

향후 사용을 위해 보관

8% 약국, 의사, 보건소

1% 지인, 가족에게 나눠줌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례'

[문제 제기]

가정에서 발생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복용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전문처리 시설에서 분류 후 소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생각 나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민생각함에 서 시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약 처리방법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약 수거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인한 약물 오남용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생각함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생각함 전문가 컨설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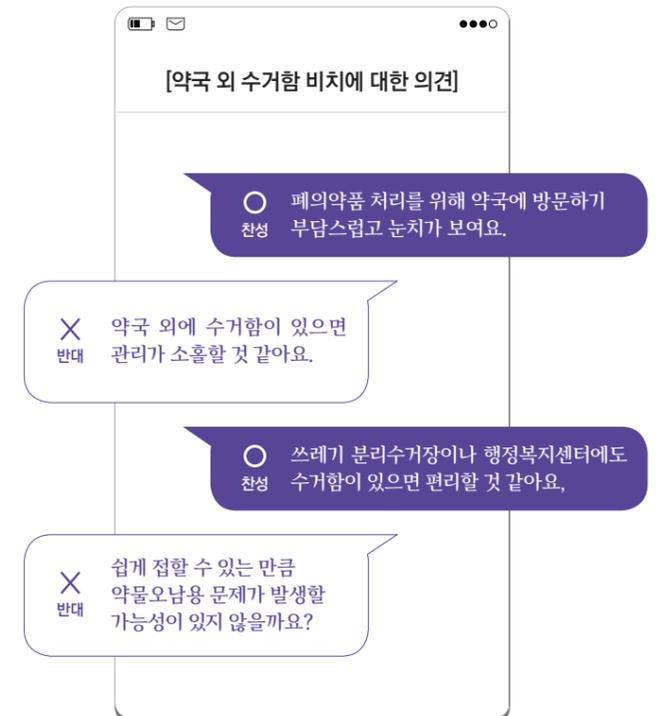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폐의약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관리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폐의약품 수거함을 공동주택관리실, 주민센터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한다면 의약품 도난 등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문제와 주변 시설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재처럼 주변의 약국을 활용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것이 안정성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은 시민 지성에 전문가 지성을 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보람동 주민센터에 한 달 간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였고, 많은 시민들의 동참으로 A4박스 8개 분량의 폐의약품을 수거하였습니다. 현장실현 결과를 기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리한 수거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협력하며, 모두에게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생각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찬성 폐의약품 처리를 위해 약국에 방문하기 부담스럽고 눈치가 보여요.

× 반대 약국 외에 수거함이 있으면 관리가 소홀할 것 같아요.

○ 찬성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행정복지센터에도 수거함이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요.

× 반대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약물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알쏭달쏭
헛갈리는
공공기관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묘하게 닮아 보이지만 임무와 기능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헛갈리기 쉬운 두 기관을 '나도 편집장'에서 비교해본다. '나도 편집장'은 독자 엽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로 앞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 언제 설립되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과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새롭게 탄생한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11월 25일 1998년 정부가 인권기구 설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써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출범

+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으로서 부패방지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고충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의 향상을 통해 인간 존엄의 가치 실현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기관



+ 무슨 일을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 청렴한 공직문화 및 사회풍토 조성 • 심사보호 : 부패·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 • 고충처리 :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 • 행정심판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국민권익을 구제 • 제도개선 : 고충·부패 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
----------------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제도·정책·관행의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 표명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 표명 • 조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및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구제 -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성희롱 조사·구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구제 •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인권 문화 확산 및 홍보 • 국내외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	---





불청객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 원인 및 예방 수칙

올해 1월부터 때 아닌 불청객이 찾아와 모든 국민의 관심이 한 곳으로 모였다.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
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
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 이상) 및 기침
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
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 국민 예방수칙

-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 예방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개인용 수건,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개인위생, 마스크 착용 등 건강수칙 지키기

+ 호흡기 증상 시 예방수칙

-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예방수칙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 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시키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 구분하여 쓰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인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나타날 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으로 상담 후 올바른 안내를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이 봄을 봄 제철 음식 재료와 요리법 맛봄

- 콩콩 얼었던 대지가 녹고 푸른 싹이 돌아 봄을 실감케 한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활력을 찾고,
한풀 꺾였던 입맛도 다시 돌아올 이 계절.
싱싱하고 푸릇한 제철 음식들로 향긋한 봄을 마주해보자.



향긋한 별미, **썩**

봄에 즐길 수 있는 별미 중 썩을 빼놓을 수 없다.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인 썩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특히나 부인병에 큰 효과가 있다. 주로 썩떡, 썩국, 썩죽, 썩버무리 등으로 다양한 썩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썩국 만들기

- 재료 : 썩 150g, 멸치육수 1000ml, 된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들깨가루 2큰술, 대파 1/2대
- 1 썩은 무른 잎과 지저분한 잎을 가려내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준비한다.
 - 2 멸치육수에 된장 2큰술을 넣어 잘 풀어준다.
 - 3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끓어오를 때 손질한 썩과 썰어놓은 대파를 넣는다.
 - 4 다시 국이 끓어오를 때 들깨가루 2큰술을 넣고, 필요에 따라 소금으로 추가 간을 한다.



쌔싸래한 별미, **더덕**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자랑하는 더덕. 호흡기 질환이 걸리기 쉬운 봄철 환절기에 사포닌이 풍부한 더덕으로 건강을 챙겨보자. 더덕구이, 더덕무침, 더덕 불고기, 더덕 말이 등으로 맛과 식감 모두 챙길 수 있는 요리가 많다.



더덕불고기 만들기

- 재료 : 소고기(불고기용) 400g, 더덕 3개, 쪽파 3대, 양파 1/4개, 당근 1/10개, 통깨 약간.
양념장 : 간장 4큰술, 설탕 2큰술, 다진 파·참기름 1큰술씩, 다진 마늘 1/2큰술, 깨소금 2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다시마 우린 물 5큰술
- 1 더덕은 껍질을 돌려 깎아 벗긴 뒤 방망이로 자근자근 두드려 큼직하게 뜯는다.
 - 2 쇠고기는 핏물을 닦아 내고 한입 크기로 썬다.
 - 3 양념장 재료를 섞어 고기에 반만 덜어 넣고 조물조물 버무린다.
 - 4 쪽파는 5cm 길이로 썰고 양파와 당근은 5cm 길이로 굵게 채 썬다.
 - 5 더덕과 쪽파, 양파, 당근을 ②의 볼에 넣고 남은 양념장도 넣어 조물조물 버무린다.
 - 6 양념한 불고기를 팬에 넣고 젓가락으로 흠뜨려가며 익힌 뒤 통깨를 뿌린다.



즐거워 별미, **주꾸미**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주꾸미는 특히나 피로해소에 좋다. DHA불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돼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보다 가벼운 몸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주꾸미 볶음, 주꾸미찜, 주꾸미 샐러드, 주꾸미 파스타 등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다.



주꾸미 볶음 만들기

- 재료 : 주꾸미 1kg, 양파 반개, 당근 1/3개, 양배추 한 줌, 미나리 한 줌, 대파 1대, 참기름 1큰술
양념장 : 고추장 3큰술, 고춧가루 5큰술, 설탕 1큰술, 매실청 3큰술, 생강 술 1큰술, 진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 1 주꾸미는 1분 정도만 데쳐 채를 이용해 물기를 뺀다.
 - 2 양념장은 양파 반개, 당근 1/3개, 양배추 한 줌, 미나리 한 줌, 대파 1대를 썰어놓고 미리 잘 섞는다.
 - 3 팬에 기름과 파를 넣고 약한 불로 파 기름을 만든후 3분 정도 끓이다가 고춧가루 1큰술을 넣고 더 끓인다.
 - 4 센 불에 채소를 넣고 양파가 투명해지도록 잠깐 볶다가 먹기 편하게 썰어 놓은 주꾸미와 양념장을 넣는다.
 - 5 잠시 볶은 후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고 버무린다.

손질법 : 주꾸미 머리를 뒤집어 내장을 떼어낸다. 머리와 다리 중간에 있는 눈은 가위로 잘라주고, 다리를 뒤집은 후 손가락으로 꺾 눌러 또 다른 눈이 나오면 가위로 잘라낸다. 그다음 밀가루나 소금을 넣고 빨래하듯 바락바락 주물러 물에 깨끗하게 행군다.



지난 2019년 <겨울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이동현 (서울시 노원구)

국민권익 소식지의 애독자로 국민권익이 왜 필요하고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겨울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다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든 국민의 곁으로 달려가고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자리를 지키며,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밝아온 새해부터는 부정부패 없고 국민의 권익이 실현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기대하겠습니다.

최석원 (부산시 사하구)

몇 년 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에 대한 제안도 했고, 다른 분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자체에서 올린 안전이나 설문에도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에서 민원 추이 그래프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의 참여가 가장 많으며 매월 80만건 이상의 민원 건수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국민의 소리가 모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설인아 (전남 여수시)

<권익리포-알리다>를 유익하게 읽었네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사회 실현과 반부패 개혁을 주도하는 범정부 컨트론타워로서 '더 투명한 사회, 더 공정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어깨가 으쓱거립니다. 특히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를 법제화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어주세요!

최준혁 (대구시 수성구)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사회는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청렴수준에서 국제적 평가가 개선되었으나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쟁의 출발이 같고, 노력의 결실이 같으며, 누구나 승복하는 통념이 통하는 안정된 삶의 터전이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조영민 (경기 의정부시)

<청렴 Toon>칼럼의 '사연수기 우수상, 할 수 있으니까'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소방 공무원으로서 직장 내 부조리에 대항하며 힘겨운 생활을 했던 주인공이 참으로 안쓰럽고 이러한 주인공의 승리를 위해 힘이 되어주었던 주변 동료와 청렴제도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기고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처럼 청렴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다양한 제도가 우리 곁에 있음이 든든합니다.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화의 협력의 장인 제19차 ○○○○○○가 오는 6월 개최된다.

지난호 정답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답자	최정윤(경북 청도군)	노재희(부산시 진구)
	김판례(광주시 북구)	신부돌(강원 원주시)
	김린아(서울시 용산구)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청백이와 권익이를 소개합니다

“부패와 불공정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따뜻한 호민관이 되어 국민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는 당차고 기개 있는 신세대 박문수.

청백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의로운 국민권익의 지킴이 신문고.

권익이

※ 마스코트(캐릭터) 사용 안내

- +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 디자인 자료를 상품화하여 사전 검토 없이 영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청백이'와 '권익이' 사용 필요시에는 담당부서(044-200-7075)와 사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 + 협의 후 '청백이'와 '권익이'를 사용하실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세요.

